

[HOME](#)   [여행사](#)

# 인터파크 '트리플', 가입자 800만 돌파

## 개인 맞춤 상품·서비스 추천 AI 경쟁력 효과

이정민 기자 | 승인 2023.03.14 20:50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의 가입자가 800만 명을 돌파했다.

트리플 누적 가입자는 지난 2017년 5월 베타 서비스로 출시된 후 1년 만인 2018년 4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9월에는 500만 명대에 진입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을 뚫고 엔데믹 시대를 맞아 지난 2월에는 800만 명대로 올라섰다.

해외 리오프닝 수요와 지난해 8월 인터파크와의 합병 시너지로 가파른 상승세라는 분석이다. 또 올해 2월 말 현재 누적으로 앱 다운로드 1226만 건, 여행자들이 직접 생성한 일정 637만 건, 서비스 중인 전 세계 도시 225곳, 등록된 맛집·호텔·관광지 305만 개, 리뷰 118만 개로 집계됐다.

트리플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취향·관심을 반영한 최적화된 최신 여행 정보와 상품·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국내 대표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이다.

국내외 최저가 항공권과 숙소부터 여행에 필수인 교통·통신·입장권까지 여행의 모든 것을 간편하게 예약·결제할 수 있다. 가령 여행지와 기간을 입력한 후 동반자 여부를 선택하고 '유명 관광지'는 필수, '여유롭게 힐링', 'SNS 핫플레이스'처럼 원하는 여행 스타일을 고르면 AI가 기존에 쌓아놓은 여행객들의 일정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맞춤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해준다.

TRIPLE

## 인터파크 '트리플' 가입자 800만 명 돌파



동선을 지도로 확인하며 나의 일정에 꼭 맞는 최적의 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고객 만족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할 때마다 추가 할인이 더해지는 셀프 패키지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여행 가계부 기능까지 탑재해 해외여행 경비를 동행인과 함께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등으로 동행인을 초대하면 만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함께 일정을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연결성과 확장성도 강화했다. 이밖에 여행지의 추억과 숨은 정보를 리뷰로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여행자 커뮤니티 '라운지'도 선보이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mailto: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